

【특 집】

## ‘선계 문학(鮮係文學)’ : ‘만주국’에 있어서

### 조선인 문학의 존재 양상

— ‘내선만문화좌담회’의 안과 밖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최일(Cui Yi)\*·왕슈위안(Wang Xiu Yuan)\*\*

#### ┃ 차 례 ┃

- I. 들어가며
- II. ‘만주국’ 문단과 ‘선계(鮮係)문학’
- III. 필수로서의 일본어: ‘일계’의 입장
- IV. 선택으로서의 일본어: ‘만계’의 입장
- V. 기원(起源)으로서의 한국어: ‘선계’의 입장
- VI. 나가며

#### 국문초록

1932년 3월~1945년 8월 사이 일제가 강점한 중국 동북(東北) 지역에 존속했던 괴뢰정권 ‘만주국’에서 한국 이주민들은 ‘선계(鮮系)’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이들이 문학은 ‘선계 문학’으로 불렸다. 이러한 계열화는 일제의 ‘만주국’ 국가 만들기의 일환이었던 바, 거주자들을 새로운 ‘국민’으로 재편하여 다민족국가로서의 ‘만주국’이라는 특수성을 표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선계 문학’은 ‘만계 문학’, ‘일계 문학’, ‘아계 문학’ 등과 함께 ‘만주국 문학’을 이루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선계 문학’과 ‘만계 문학’, ‘일계 문학’의 첫 번째 접촉이었던 ‘내선만문화좌담회’에서 ‘선계’ 문학자들이 ‘일계’, ‘만계’ 문학자들과 일본어 글쓰기와 일본어 번역, 한국어의 글쓰기 등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하였던 논의와 그와 관련된 내적, 외적 상황들을 고찰하였다. ‘선계’와 ‘일계’, ‘만계’의 ‘협화’를 표방한 이 좌담회에서 ‘일계’는 ‘선계’에 글쓰기 언어를 일본어로 할

\* 중국 연변대학교 교수.

\*\* 중국 연변대학교 박사과정.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만계'는 일본어 글쓰기에 반대하면서 '선계'가 자기 작품을 일본어로 번역함으로써 '선계', '일계' 양측이 교류하기를 희망했고, '선계'는 일본어 글쓰기와 번역 모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계'의 이러한 입장은 '만주국'을 중국도 아니고 식민지 한국도 아닌 하나의 새로운 국가로 상상하고, 이 새로운 국가에서 새로운 기원이 되고자 하는 자기 정체성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제 식민지인 '만주국'에서 이러한 욕망은 정치적, 문화적 기반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식민주의 담론에 포섭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주제어: '만주국' '선계 문학' 쓰기 번역

## I. 들어가며

광복 전 중국의 동북 지역, 즉 '만주(滿洲)'에서 전개되었던 한국인 문학은 '재만 조선인문학' 혹은 '재만한국인문학'으로 불린다. 하지만 '만주국'(1932년 3월~1945년 8월) 시기 동안 조선인 문학은 '선계 문학(鮮係文學)'이란 이름으로 불리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계(鮮係)', 즉 '조선인 계열'은 스스로 취한 명칭이 아니라 일제가 '만주국'의 거주자들을 '국민'으로 재편하는 과정에 붙인 명칭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구별은 법령이나 서류 등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였다. '만주국' 건립 당시 역내에는 한족(漢族), 만주족(滿洲族), 몽골족, 회족(回族) 등 다양한 원주민과 조선인, 일본인, '백계 러시아인'(white Russian) 등 이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일제는 이들 중 '만주국'이 건립될 당시 역내에 살고 있던 한족(漢族), 만주족(滿洲族), 회족(回族), 몽골족 등 원주민들을 묶어서 '만계', 일본인들을 '일계', 조선인들을 '선계', 러시아인들을 '아계' 등으로 불렀다. 또한 '만주국' 건국 이후 산해관(山海關)을 넘어 역내로 들어온 한족, 만주족 등은 따로 '중국인'이라고 불렀다.

역내의 거주자들을 부동한 계열로 분류한 것은 ‘다민족국가’로서 ‘만주국’의 특수성을 부각하기 위해서였다. ‘만주국’은 중화민국(中華民國)의 영토를 강점하고 설립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제는 ‘만주’의 지역적, 문화적 독자성을 강조함으로써 ‘탈중국화’를 시도하였다. 일제로 ‘만주국’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한족(漢族)<sup>1)</sup>을 만주족으로, 회족(回族) 등 다른 민족들과 묶어서 ‘만계(滿係)’로 부른다거나, ‘한어(漢語)’를 가리켜 ‘사어(死語)’가 된 지 200년이 넘는 ‘만어(滿語)’라고 부른 것 등이 모두 ‘탈중국화’의 수단이었다.<sup>2)</sup>

일본어의 ‘만주국 국어’화 역시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시작은 ‘만어’에 대한 일본어의 우위를 명시하는 것이었다. 일제로 1932년 9월 15일 체결된 ‘일만 의정서(日滿議定書)’ 등 일제와 ‘만주국’ 사이에 체결된 일련의 협정 말미에는 협정 내용의 해석은 반드시 일본어본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부가 조항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는 비슷한 시기인 1932년 5월 5일 체결된 ‘상해정전협정(上海停戰協定)’의 말미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세 가지 판본 중 영어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과 비교된다.<sup>3)</sup>

1937년 7월 7일 ‘노구교사변(蘆溝橋事變)’ 이후 일제의 중국 침략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식민지에 대한 ‘황민화’가 강화되었으며, 더불어 일본어의 ‘국어’화가 보다 긴밀하게 추진되었다. ‘만주국’ 건국 이후 ‘만어(滿語)’ 즉 중국어가 ‘국어’로 채택되었고, 일본어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었지만 중요한 ‘외국어’로 인식되었다. 그러다 1937년 5월 제정되고 1938년 1월부터 시행된 ‘신학제요강(新學制要綱)’에서 “일본어는 日滿 一德一心에 기초하여 국어의 하나로 중시한다”<sup>4)</sup>로 규정함으로써 일본어가 공식적으로 ‘만주국 국어’ 중의 하나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일제

---

1) 1940년 10월의 ‘만주국’ 인구통계를 보면 총인구가 4320만 명, 그중 한족(漢族)이 3687만(90.24%) 명, 만주족이 267만 명, 몽골족이 106만 명, 조선인이 145만 명, 일본인이 82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滿洲國史編撰刊行會 編, 東北淪陷十四年史吉林編寫組 譯, 1990, 『滿洲國史』(分論, 上), 97쪽.  
2) ‘한어(漢語)’를 ‘만어(滿語)’라고 부른 것이 ‘한어’를 비하하기 위한 의도적 명명이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다(文貴良, 2017, 「東北淪陷時期偽滿洲國의 日語殖民問題」, 『學術月刊』 1월호, 139쪽).  
3) 復旦大學歷史係 編譯, 1983, 『1931-1945 日本帝國主義對外侵略史料選編』, 上海人民出版社, 53쪽, 77쪽, 80쪽.  
4) 劉慧娟 主編, 2015, 『東北淪陷時期文學作品與史料編年集成』 第28卷, 线裝書局, 4쪽.

말기에 이르러서는 ‘만주국’ 내 모든 학교의 중국어 혹은 기타 언어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일본어만이 유일한 ‘국어’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만주국 문학’ 건설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3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해당 논의는 1938년 11월 30일 하야시 후사오(林方雄),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 등 일본 작가들이 한국과 ‘만주국’ 순방 도중 진행된 현지 작가들과의 좌담회였다. 이 좌담회는 일본 문학 주도의 ‘만주국 문학’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 기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그쳐 보다 더 깊이 있는 논의는 전개되지 않았다.<sup>5)</sup> 이 좌담회에서 ‘선계 문학’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바, 그때까지 ‘일계’와 ‘선계’ 사이에 교류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선계 문학’은 ‘만주국 문학’ 만들기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 역할이 줄곧 미미했는데, 해당 ‘프로젝트’의 주역은 어디까지나 ‘만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일계’였으며 ‘일계’의 주된 상대는 ‘만주국’ 문단에서 규모가 가장 큰 ‘만계’였고, ‘선계’는 이들 양쪽 어디에서도 주된 상대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래 상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이는 ‘선계 문학’의 ‘만주국’ 문단에서 차지하는 ‘존재감’과 ‘선계 문학’이 ‘만주국 문학’을 대하는 입장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선계 문학’과 ‘일계 문학’, ‘만계 문학’의 직접적인 교류는 단 한 차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940년 3월 22일 개최된 ‘내선만 문화좌담회(內鮮滿文化座談會)’이다.(이하 ‘좌담회’로 표시) ‘좌담회’의 주최자는 만선일보사, 장소는 만주문화협회(滿洲文化協會), 사회는 ‘일계’ 작가 스기무라 유조(杉村勇造)가 맡았다. ‘일계’ 대표로는 스기무라 유조 외에 작가이자 번역가인 오우치 다카오(大內隆雄), 작가 요시노 하루오(吉野治夫), 나가 켄레이(仲賢禮)가 참여했고, ‘만계’의 대표는 췌칭(靑靑)<sup>6)</sup>과 첸송링(陳松齡),<sup>7)</sup> ‘선계’의 대표는 시인 박팔양, 백석과 극작가 김영팔(金永八), 소설가 이갑기(李甲基) 그리고 일본어로 창작하고 ‘일계’ 문단

5) 崔貞玉, 2011, 「만주문학」을 통한 한중일 문학(자) 교류-좌담회(1938)와 ‘대동어문학자대회’(1942)를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第33輯,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6) 췌칭(靑靑, 1917~1962), 본명 리우페이(劉佩), ‘만주국’의 대표적인 ‘만계’ 소설가.

7) 첸송링(陳松齡, 1912~), 필명 신가(辛嘉), ‘만주국’의 ‘만계’ 작가로 수필 창작, 문학번역 등 작품을 남겼다.

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소설가 이마무라 에이지(今村榮治) 등이 참석하였다. ‘좌담회’의 취지는 만선일보사 사회부장 신언룡(申彦龍)이 개회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종래 선계 측으로서도 내, 만계 文化 단체 혹은 문화인과의 접촉이 없었던 것을 매우 감(憾)으로 여겨오던 차에 만일문화협회의 알선으로 오늘의 기회를 얻은”<sup>8)</sup> 데 있었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내선만문화좌담회’를 비롯한 ‘만주국’ 문단에서 ‘선계 문학’의 활동, 즉 인적 교류나 작품 번역 등의 자취들이다. ‘만주국’에 있어서 ‘선계 문학’과 기타 계열 문학의 교류에 대해서 김장선(金長善)은 다량의 새로운 자료 발굴에 기초하여 ‘만주국’의 조선인 문학에 대한 여러 편의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밖에 김재용, 이해영(李海英), 박려화(朴麗花), 세충(謝瓊) 등 연구자들도 관련 연구를 적지 않게 진행하였다. 먼저 김장선은 「偽滿洲國 文學場에서의 변두리文學의 二重性 연구—〈돌아오는 人生〉과 〈新生〉을 중심으로」<sup>9)</sup>에서 현경준의 소설 「돌아오는 人生」과 구딩(古丁)의 소설 「신생」에 대한 비교 고찰을 통하여 ‘만주국’ 문학장에서 조선인 문학이나 중국인 문학 모두 변두리 문학에 속했던 바, 중심문학—국책문학에 대한 의뢰와 이탈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장선은 「만주국 문학장에 이입된 한국 문학—『조선단편소설선』 출간을 중심으로」<sup>10)</sup>에서 ‘만주국’ 문단에서 유일하게 번역, 출판된 한국 문학 선집인 『조선단편소설선』의 편집자, 출판사 및 출판 후의 평론 등을 고찰하여 해당 소설 선집이 출판사의 영리를 위해 발간된 도서가 아니라 ‘만주국’ 내 애국 문인들이 저항 투쟁과 저항 의식을 계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한 도서로서 그 문학사적 의미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김재용은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본 ‘만주국’ 조선인 문학」<sup>11)</sup>에서 1930년대 이후 ‘만주국’의 조선인 문학에 대하여 고찰하며

8) 「內鮮滿文化座談會」, 『만선일보』, 1940년 4월 5일. 읽기의 편의를 위해 표기와 띄어쓰기를 현행 규범으로 바꿨다.

9) 김장선, 2004, 「偽滿洲國 文學場에서의 변두리文學의 二重性 연구—〈돌아오는 人生〉과 〈新生〉을 중심으로」, 『人文社會論叢』 제11호,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0) 김장선, 2019, 「만주국 문학장에 이입된 한국 문학—『조선단편소설선』 출간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62호, 한중인문학회.

조선인 문학이 만주적인 특수성을 가진 문학을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창작, 출판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시종일관 ‘일제’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만주국’ 문단에 진입하지 못한 바, 결국에는 식민지 주변부의 피식민자와 식민자의 권력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이해영은 「만주국 ‘鮮계’ 문학 건설과 안수길」<sup>12)</sup>에서 ‘만주국’의 대표적 ‘선계’ 작가인 안수길의 창작과 평론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조선인 작가들은 ‘내선일체’보다 ‘오족협화’를 더 나은 것으로 파악하고 ‘오족협화’를 적극 이용하여 ‘만주국’의 조선인 문학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박려화는 박사학위논문 『日帝 末 滿洲國 朝鮮人 文學과 中國人 文學의 相互交涉 研究』<sup>13)</sup>에서 ‘만주국’의 중국인 작가와 조선인 작가들의 접촉과 교류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측의 상호 인식 양상과 의미 등을 분석하였다. 세충은 「주목 받지 못한 응시: 만주국 내 선만 문학 교류에 대한 새로운 해석(被忽視的凝視: 滿洲國內鮮滿文學交流新解)」<sup>14)</sup>에서 ‘만주국’의 조선인 작가들이 중국어 문단과의 교류를 통해 자체적인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일본어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많은 제한을 받았는 바, 양측의 교류에는 식민지 지배 질서에 대한 도전과 비판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만주국’에 있어서 조선인 문학의 존재 양상, 조선인 문학과 중국인 문학 사이의 번역과 소개, ‘조선인 문학자’의 ‘만주 로컬리티’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지만, ‘만주국’이라는 맥락 속 ‘선계 문학’의 존재 양상에 대하여 진일보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내선만문화좌담회’에서의 ‘일계’, ‘만계’, ‘선계’ 사이에서 일본어 글쓰기와 번역, 민족어 글쓰기 등 핵심 의제를 둘러싸고 오간 대화는 ‘만주국’이라는 맥락 속에서

11) 김재용, 2012,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본 ‘만주국’ 조선인 문학」, 이해영, 이상우 편, 『문명의 충격과 근대 동아시아의 전환』, 도서출판 경진.

12) 이해영, 2013, 「만주국 ‘鮮계’ 문학 건설과 안수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0호; 2017, 「‘만주국’ 조선계 문단에서의 향토 담론과 안수길의 『북향보』」, 『만주연구』 제23호, 한국현대문학회.

13) 박려화, 2015, 『日帝 末 滿洲國 朝鮮人 文學과 中國人 文學의 相互交涉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 謝瓊, 2018, 「被忽視的凝視: 滿洲國內鮮滿文學交流新解」, 『瀋陽師範大學學報』 제6호, 沈陽師範大學.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내선만문화좌담회’ 및 그 내적, 외적 맥락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만주국’의 식민지 문화 권력과 그에 대한 한국 문학자들의 대응 등을 해명함으로써 ‘선계 문학’이라는 기표의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 II. ‘만주국’ 문단과 ‘선계(鮮係)문학’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만주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문학은 중국어 문학 다시 말해 ‘만계 문학’과 일본 이주민 문학자들의 ‘일계 문학’이었다. ‘아계 문학’의 경우 규모는 작았지만 여러 종류의 잡지를 운영하면서 활발하게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인 문학자들은 『만선일보』를 중심으로 문단을 이뤄 한국어 글쓰기를 중심으로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만계 문학(滿系文學)’은 문학자의 규모, 출판기관의 수, 작품의 양 모두에 있어 ‘만주국’ 문단 내에서 압도적인 존재였다. 박문인서관(博文印書館), 대지도서관사(大地圖書公司), 흥흥서국(鴻興書局), 오성서림(五星書林), 월간만주사(月刊滿洲社), 예문서방(藝文書房) 등 대형 출판사에서 출간한 문학도서만 수백 종에 이르렀으며, 『신만주(新滿洲)』(1939년-1945년), 『청년문화(青年文化)』(1943년-1945년), 『기린(麒麟)』(1941년-1945년) 등 잡지가 거의 100종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시보(盛京時報)』와 같은 일간지에 문예란이 개설되어 있었다.<sup>15)</sup>

‘만계 문학’에 비견될 존재감을 갖고 있었던 계열은 ‘일계 문학’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확장에 따라 ‘만주’로 이주한 일본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일계 문학’은 식민지 종주국이라는 위치에 걸맞게 수백 명의 작가가 있었으며, ‘만주 펜클럽’, ‘신흥시사(新興詩社)’, ‘일가(一家)’, ‘만주문화회(滿洲文話會)’ 등 문예 단체는 물론, 『고량(高粱)』, 『작문(作文)』, 『모던만주(摩登滿洲)』, 『만주낭만(滿洲浪漫)』 등 대형 문예

15) 劉曉麗, 2013, 『偽滿洲國的文學與文學雜誌』, 重慶出版社; 2017, 『異態時空中的精神世界—偽滿洲國文學研究(修訂版)』, 北方文藝出版社.

지를 운영하였다.

‘아계 문학(俄系文學)’은 제국 시기 러시아의 점령지였던 하얼빈(哈爾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러시아혁명’ 이후 이곳으로 망명 혹은 이주한 20만 명의 ‘백계 러시아인’들이 중심이었다. 이들은 『변계(邊界)』 등 문학지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문학 활동을 전개하였다.<sup>16)</sup>

‘선계 문학’은 ‘만계 문학’, ‘일계 문학’과 비교해서 그리고 ‘아계 문학’에 견주어 봐도 규모와 영향력에 대단히 작았다. 출판 기구로는 滿鮮日報社, 滿洲學海社, 朝鮮文藝社, 藝文堂 등이 있었고, 일간지로 『만선일보』와 그 전신 『만몽일보(滿蒙日報)』, 『간도일보(間島日報)』가 있었다.<sup>17)</sup> 현재까지 발굴된 ‘만주국’ ‘선계 문학’ 단행본은 단편소설집 『싸트는 대지』(만선일보사, 1941년), 『북원(北原)』(안수길, 間島 藝文堂, 1944년), 『만주시인집(滿洲詩人集)』(第一協和會俱樂部文化部, 1942년), 『재만조선시인집(滿洲朝鮮詩人集)』(間島 藝文堂, 1943년), 『만주조선문예선(滿洲朝鮮文藝選)』(新京 朝鮮文藝社, 1941년)가 있다. 이밖에 문학도서는 아니지만 『半島史話와 樂土滿洲』(滿洲學海社, 1943년)에 약간의 문학작품이 수록되어있다. 문학지가 없었기 때문에 『만선일보』의 학예면(學藝面)이 ‘선계 문학’의 유일한 일상 발표 공간이었다.

규모도 규모지만 ‘선계 문학’은 ‘만주국’ 문단에서 존재감 자체가 크지 않았다. 일본의 연구자 오쿠보 아키오(大久保明男)의 집계에 의하면 현존하는 ‘만주국’ 중국어 간행물에 게재된 ‘선계 문학’ 관련 소개는 고재기(高在騏)의 「在滿鮮系文學」(『新滿洲』, 1942년 6월)과 우랑(吳郎)의 「記我與鮮系的觸鬚」(『盛京時報』, 1942년 6월 24일) 단 두 편뿐이고, 번역되어 소개된 작품은 『신만주(新滿洲)』 1941년 11월호에 게재된 안수길의 소설 「부억녀」한 편뿐이다. 그런데 고재기는 조선인이므로 ‘만계’ 문학자가 ‘선계 문학’을 소개한 글은 단 한 편뿐이라는 말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만

16) 李延齡, 2016, 「中國俄羅斯僑民文學與蘇維埃文學的比較研究」, 『俄羅斯文藝』 1월호, 北京師範大學; 姜尙, 2015, 「革命話語下的雙重敘事倫理—論‘東北流亡作家群’上海時期‘俄僑’書寫」, 『文藝爭鳴』 8월호, 吉林省文學藝術界聯合會.

17) 『만몽일보』는 1933년 ‘만주국’의 국책으로 창간된 한국어 일간지이고 『간도일보』는 1924년 일제의 간도총영사관에서 창간한 한국어 일간지다. 1936년 『만몽일보』가 『간도일보』를 인수, 합병하고 『만선일보』로 재창간하여 ‘만주국’ 내 유일한 한국어 일간지가 되었다.

주국’에서 출판된 한국 문학 작품집인 『조선단편소설선(朝鮮短篇小說選)』(新京 新時代社, 1941년)에 수록된 10편의 소설 중 ‘선계’ 작가의 작품은 없다. 이밖에 세 차례 개최되었던 ‘대동아문학자대회(大東亞文學者大會)’에 이광수, 유진오(俞鎮午) 등이 한국의 문학자 대표로 참석했지만 ‘선계 문학’ 대표는 참석한 바 없다.

‘만주국’ 문단에서 ‘선계 문학’의 존재감이 희박했던 원인으로는 먼저 활동 공간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선계 문학’의 유일한 발표 공간은 신경(新京)의 『만선일보』였다. 수십 명에 불과한 ‘선계’ 문학자들이 신경과 간도의 용정(龍井), 국자가(局子街), 도문(圖們) 등지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지역은 신경을 제외하고 전부 ‘만주국’의 주변부에 속했으며, 발표 지면과의 물리적 거리가 ‘선계’ 작가의 작품 활동에 있어 방해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워낙 그 수가 적었던 ‘선계’ 문학자들의 작품 중 상당수가 한국 내의 발표 공간으로 분산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강경애로 ‘만주국’이 건립된 1932년에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여 1942년 귀국할 때까지 10년 남짓 ‘만주’에서 생활하면서 ‘만주’ 체험을 주요 소재로 글을 썼지만, 모든 작품을 한국에서 발표한 바, “몸은 만주, 마음은 한국”의 전형적인 사례였다. 반대로 안수길의 경우 대부분의 작품을 ‘만주국’에서 발표하고 개인 창작집도 ‘만주국’에서 출간했다.

하지만 ‘선계 문학’의 존재감이 미미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선계 문학’과 ‘만계’ 및 ‘일계’ 문학 사이의 소통의 부족이었다. ‘만주국’이 건립된 지 8년이 지난 1940년 3월 22일이 돼서야 ‘선계’와 ‘만계’ 및 ‘일계’ 세 계열 문학의 첫 번째 공식적인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으니 소통 부족이라기보다 세 계열 모두 소통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바꿔 말하면 ‘만주국’ 내 ‘선계 문학’이란 이른바 ‘문화부대’<sup>18)</sup>로, 요컨대 이주 지식인들의 도래와 함께 시작된 이래로 줄곧 ‘만주국’의 한 모퉁이에 ‘외딴섬’을 이뤄 스스로 생존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 1930년대 말 일제의 파시즘 체제의 건설이 강화됨에 따라 식민지에 대한 언어, 문학 등 문화 통합의 일환으로 ‘선계 문학’이 소환되게 된 것이다.

18) 신영철, 1941, 『「썩트는 대지」 뒤에』(신영철 편, 『썩트는 대지』, 만선일보사.

이 만남 이후 『만선일보』에 ‘만계 문학’을 소개하는 글이 몇 편 게재되는 등 ‘선계’와 ‘만계’ 문학의 교류가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1942년과 1944년 ‘만주국’ 국책 차원에서 두 번 기획, 출간된 『滿洲各民族創作選集』<sup>19)</sup>에는 ‘일계’, ‘만계’, ‘아계’는 물론 ‘몽계(蒙系)’의 작품까지도 수록돼 있지만, ‘선계’의 작품은 한 편도 수록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만주국’의 조선인 문학은 ‘선계’라는 호명에 쉽게 반응하지 않았으며, 그 이면에는 ‘만주국 문학’/‘만주국’의 ‘국민문학’ 건설에 있어서 일본어 역할에 대한 ‘일계’, ‘만계’, ‘선계’의 엇갈린 입장이 내재되어 있었다.

### Ⅲ. 필수로서의 일본어: ‘일계’의 입장

‘좌담회’는 스기무라 유조가 ‘만주국’ 문예 운동의 중심기관인 ‘만일문화협회(滿日文化協會)’와 산하 문예 단체 ‘문화회(文話會)’를 소개하면서 시작된다. ‘만일문화협회’는 1933년 설립된 ‘만주국’의 국책 문화단체로 ‘만주국’ 국무총리 장경혜(張景惠)가 명예회장, 청조(淸朝)의 유신(遺臣)이자 부의(傅儀)의 심복이었던 나진옥(羅振玉)이 회장을 맡고 있었다. 한편 ‘문화회’는 1937년 6월 설립된 일본인 문인단체로 ‘좌담회’에 참석한 오시노 하루오 등이 창립회원으로 있었다. ‘문화회’는 ‘만주국’ 민생부(民生部)의 경비 지원을 받아 ‘만주국’ 문학자들의 연락을 도모하고 ‘만주국’의 중국인 문학을 일본에 소개하는 등 대외 문학 교류 활동을 전개하던 ‘어용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스기무라 유조가 앞서 언급한 내용의 기관 소개를 마친 뒤 이갑기가 ‘일계’가 ‘조선문학’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해 문의한다.

이갑기: 만주에 오신 일계의 여러분들은 대개가 조선을 거쳐 지났을 뿐이므로

19) 山田清三郎 외 3인, 1942, 1944, 『滿洲各民族創作選集』(一卷, 二卷), 創元社.

조선에 대한 인식이 박약한 모양인데 조선문학의 소개는 어떠하십니까?

스기무라 유조: 장혁주 씨의 「春香傳」을 만역(滿譯)하여 『예문지(藝文志)』에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쨌창: 이광수 씨의 「조선문학개론」을 『예문지』에 역재(譯載)한 일이 있고<sup>20)</sup> 다음에는 장혁주 씨 「權といふ男」를 번역할 예정입니다.<sup>21)</sup>

‘만주국’ 문단 내지 중국 문단에 가장 많이 알려진 조선인 작가는 장혁주였다. 일본 문단에서 활동하면서 일본어 창작을 많이 했고 초기에 진보적 경향의 작품을 많이 창작했기에 장혁주는 1933년 「꽃기는 사람」의 번역, 게재를 시작으로 ‘좌담회’가 열리기 전까지 장혁주가 집필한 6편의 소설과 3편의 한국 문학 관련 문장이 이미 중국 문단에 소개된 상태였다. ‘만주국’에 소개된 장혁주의 문학 활동을 살펴보면, 한국에서도 크게 논란이 됐던 장혁주의 일본어 극본 「춘향전」이 『예문지』<sup>22)</sup> 창간호(1939년 6월)에 게재되었을 뿐 아니라 1941년 ‘만주국’ 문단에서 출간된 『조선단편소설선(朝鮮短篇小說選)』에 장혁주의 「이치삼」과 「늑대」 두 편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식민지 출신 문학자 중 일본어 글쓰기와 번역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상당한 주목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장혁주는 ‘좌담회’ 내내 ‘일제’ 문학자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장혁주가 주요하게 언급된 맥락에서 알 수 있듯이 ‘내선일체’, ‘선만일여’ 등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정치적 배경하에서 ‘좌담회’의 핵심적인 의제는 역시나 일본어 글쓰기였다.

나카 켄레이: 조선 작가가 조선어로 대개 쓰고 있는 것은 일본어로 쓰는 것이 이단시(異端視) 되기 때문입니까? 혹은 그것이 주류로 되었기 때문입니까?

20) 이 좌담회가 개최되기 전 『예문지』는 총 2기가 간행되었는데 이광수의 「조선문학개론」이 게재된 적은 없다. 이 좌담회가 개최된 후인 1940년 6월 간행된 『예문지』 제3집에 이대우(李臺雨)의 「現代朝鮮文學論」이란 글이 게재되었다(劉曉麗, 2012, 『偽滿洲國文學與文學雜誌』, 重慶出版集團·重慶出版社, 406면).

21) 「內鮮滿文化座談會(二)」, 『만선일보』, 1940년 4월 6일.

22) 『예문지』는 1939년 6월 창간된 문학지로 반년 주기로 3기 간행하고 나서 휴간되었다가 1943년 11월 ‘만주문예가협회(滿洲文藝家協會)’ 중문 기관지로 복간되었다.

이갑기: 문학이 국적이나 족적(族籍)을 분간할 때 아직 문학개론의 과정에 속하는 일이나마 위선 문학이 씌워진 언어의 족적이 무엇보담도 제일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정하면 문학의 민족 정서나 작가의 족적이 다른 정서에 의한 제작이니 또는 그 소재의 여하로 이야기는 상당히 복잡성을 가지나 무엇보담 지나 문학이기에는 먼저 지나어 문학임이 필요함과 같이 조선 문학이기에는 위선 조선어 문학임이 제일의 조건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선 작가가 조선문학을 한다는 의미에서 조선어로 쓰게 되는 것이며 둘째는 역시 제 언어에 대한 애착으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내지 언어로도 안 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내지어(內地語) 문단에 진출을 꾀하며 이효석, 유진오, 이무영 등은 내지어로도 아마 장혁주와 유(類)가 아닐 만큼 숙련한 것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스기무라 유조: 그러면 어찌하여 내지 문단에 진출치 않습니까?

박팔양: 그것은 진출을 하려도 기회가 없는 관계이지요.

스기무라 유조: 그래요? 그럴 리가 있나. 역시 그편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할 의사가 없는 데 있지 않은가요?

박팔양: 아마 그 관계는 오묘합니다. 조선 작가로서는 나가고 싶으나 내지 출판자본과 제휴할 형편이 못 된 관계지요.

오우치 다카오: 번역물도 이번 동경서 나온 것이 처음입니까?

이갑기: 아닙니다. 그전에도 약간이 있었던 같이 기억됩니다. 김동인의 단편 기타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sup>23)</sup>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질의가 끝나고 ‘일제’ 대표 나가 켄레이는 곧장 한국 문학자들의 일본어 사용 거부를 문제 삼는다. 이에 대한 ‘선계’ 문학자 이갑기의 대답은 “한국 문학은 당연히 한국어로 써야 한다”는 명백한 입장 표명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이효석 등 작가들의 일본어 글쓰기 수준이 일본 내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장혁주에 비해 우수할 것이라고 한 응답은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하는 것이다”라는 반발로 들린다. 그러자 스기무라 유조는 한국

23) 위의 글.

문학자들은 일본어 창작에 소극적일 뿐 아니라 일본 문단 진출에도 적극적이지 않다며 질책한다. 한편 오우치 다카오가 한국 문학자들의 작품이 일본에서 번역 조차 많이 되지 않는다고 부연하자 나카 켄레이는 장혁주가 일본어로 번역한 「춘향전」을 거론하면서 번역의 효과에 의문을 표한다.

나카 켄레이: 춘향전을 일본문으로 번역하면 춘향전의 독특한 좋은 기분이 나지 않는 모양이더만요!

이갑기: 춘향전이라 하여도 아마 장혁주의 제작물의 이야기겠죠. 이걸 조선서도 말썽이 많이 되었습니다. 원체 이 작가의 고증적 부족, 사적(史的) 지식의 천박이 조선적인 정서를 낼 만한 창작적 능력이 없는데 기인되죠. 아무리 하여도 춘향전이 가진 조선미를 미득(味得)하자면 재래의 토판(土版)에 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우치 다카오: 다 중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의 독서력(讀書力)은 일문(日文)과 선문(鮮文) 중의 어느 편이 나은 모양입니까?

박팔양: 지금 현상으로는 차차 일문의 독서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나카 켄레이: 작년 경성제대의 조선문 문제로 한때 말썽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은 정치적 의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까? 문사들의 의견도 그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요사이의 조선어교육은 어떠합니까? 문자(文士)들의 의견도 그 이면에는 이런 것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요사이의 학교의 조선어 교육은 어떠합니까?

이갑기: 그것은 정치적 의미보담도 제 말에 대한 감상적 애착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요? 조선의 현상은 『남(南)이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로 나아가고 있으니 정치적 의미는 아니겠죠. 문사들의 의견이란 것도 오래 한 생활을 통하여 가져오는 육체적인 애정의 발로의 정도를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학교의 조선어교육은 강제 폐지가 아니라 자발적 식으로 3학년 이상인가부터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sup>24)</sup>

장혁주가 번역한 「춘향전」이 일본에서 공연되었는데, 이후 한국 문단에서는 해

24) 「內鮮滿文化座談會(三)」, 『만선일보』, 1940년 4월 8일.

당 작품을 두고 일본어로 번역한 한국 작품이 ‘한국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또한 장혁주의 「춘향전」은 중국어로 증역(重譯)되기도 했는데, 해당 텍스트가 1939년 6월 ‘만계 문학’의 핵심 간행물인 『예문지』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만계’ 문학자들도 이 작품을 잘 알고 있었다. 이갑기는 장혁주의 일본어 「춘향전」을 실패한 작품으로 보고 그 이유로 작가의 능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한국적 미는 한국어를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오우치 다카오와 나가 켄레이는 화제를 확장하여 한국의 일본어 교육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데, 이는 ‘좌담회’의 정치적 색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하여 이갑기는 정치와 언어는 별개의 것으로 한국어에 대한 애착은 “정치적 의미보담도 제 말에 대한 감상적 애착”이라고 하면서 언어 문제를 극히 ‘탈정치화’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식민지 문학자들이 일본어로 창작해야 한다는 것은 1930년대 말 ‘황국신민화’ 정책에 의하여 추진된 일본어의 상용화와 맥을 같이하는 ‘일계’ 측의 주장이었다. 준(準) 식민지 혹은 반(半) 식민지인 ‘만주국’과 식민지 한국의 상황은 대체로 비슷한 바, ‘일계’의 ‘만계’ 및 ‘선계’ 문인들에게 가하는 일본어 글쓰기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선계’ 문학자들은 이에 대해 언어예술의 특성, 민족어에 대한 애착 등 문학 내적, 외적 원인을 들어가며 애써 거부하고 있지만 ‘일계’는 전혀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고 있어 ‘좌담회’의 취지인 ‘협력’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강요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V. 선택으로서의 일본어: ‘만계’의 입장

‘일계’와 ‘선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일본어 글쓰기 문제에 있어 ‘만계’ 역시 ‘선계’와 마찬가지로 일본어 글쓰기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요시노 하루오: 어쨌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조선인 작가들이 너무 일본문 창작에도 등한하며 번역만 하더라도 힘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선 만주만 하더라도 조선인 작가 자신들이 문학을 번역하여 소개할 노(勞)를 가지지 않으면 언제까지든지 만주 문화계에서 조선 문학을 대할 기회가 적겠죠.

박팔양: 이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상호 연락의 부족으로 그렇겠지요. 조선인 작가도 이런 것을 바라지 않는 바가 아니지요.

쨬칭: 우리들로서도 조선 문학을 대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만인(滿人)이 조선말을 모르고 따라서 일본인도 그러니 이 점 조선인 작가 손수 자기 작품을 일문으로 소개한다면 만인 작가들도 일문(日文)만 잘 역(譯)하니 만문(滿文)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sup>25)</sup>

요시노 하루오의 위압적인 어투와 ‘만계’ 문학자 쨬칭의 입장은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쨬칭은 ‘좌담회’ 내내 일본어 쓰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선계’ 문학자들이 일본어 번역에 힘써주기를 희망하는데, 그의 입장에서 번역은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만계’는 어디까지나 ‘선계’와의 평등한 교류를 희망하는 바, ‘일본(어) 문학’으로 편입될 것을 요구하는 ‘일계’와는 그 입장이 상반된다. 바꿔 말하면 ‘만계’ 문학자 쨬칭에게 있어 번역은 ‘매개’의 수단이지만 ‘일계’ 문학자들에게 있어 번역은 ‘통합’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번역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인식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라는 ‘만주국’ 내 ‘일계’와 ‘만계’의 서로 다른 위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배자인 ‘일계’는 일본어 글쓰기가 최선이기는 하지만 차선으로 번역도 의미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친다. 같은 ‘일계’인 스키무라 유조는 끝까지 “만주에 있어 선계 작가의 활동이 적은 것은 역시 선계 작가의 태만이나 오해에 있다.”<sup>26)</sup>라는 힐난을 멈추지 않고 결국 ‘선계’ 김영팔로부터 “이다음부터 이것을 기회로 많이 교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sup>27)</sup>라는 ‘반성’을 이끌어 낸다.

25) 위의 글.

26) 위의 글.

27) 위의 글.

일본어 글쓰기와 번역의 문제는 ‘국민문학’ 즉 통합된 ‘만주국 문학’ 건설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진다.

이갑기: 만주국에 장차 국민문학의 수립에 대한 무슨 논의라도 없습니까?

오우치 다카오: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만주에는 만주 독특한 문학이 성립되리라고 봅니다. 아직은 일계는 일본문화의 연장이며 만계는 만계의 특색을 가진 문학을 가지고 있으나 풍속, 인문 기타 조건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오래간다면 역시 만주에서 생산되는 문학으로서의 개성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갑기: 그러면 만주에서 국민문학이 창설된다면 그것은 국어의 통일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오우치 다카오: 그야 아직 먼 장래에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겠지요마는 아직은 역시 각자의 언어를 사용함이 필요하겠지요.

이갑기: 그러면 그것은 모국의 문학과 엄연히 문학사적 계열을 달리해야겠지요.

오우치 다카오: 그야 그렇지요.

박팔양: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쓰더라도 아미리가(亞米利加) 문학은 국가의 상이로서 아직 다른 문학적 목적을 가지니까요. 물론 만주 문학과 일본 문학은 이다음으로 다른 계류(系流)를 가지더라도 그것은 영미 문학의 분류의 주요 계기인 정치적 계류보다도 단순한 문화적 의미를 띠겠지요.

췌칭: 언어 문제는 그렇게 급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란 원체가 일조일석에 통하여 된 것이 아니고 한 민족의 전통이나 정서와 떼래도 뗄 수 없는 문화적 표현인 만큼 만주인 생활의 소재를 만주말 쓰지 않는다면 완전히 그 정서 그 정신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지요. 이진 조선인 작가로서 장혁주가 조선사람을 소재로 취하나 보는 사람으로서는 조선인의 생활이란 것보다도 그 용어의 축적이 가진 인상이 더 커, 그럼으로 구덩(古丁) 씨도 이 점은 열심히 주장하며 각자 특색을 각자의 언어로써 표현하여 충분한 발전이 있는 뒤에 비로소 최고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sup>28)</sup>

28) 「內鮮滿文化座談會(四)」, 『만선일보』, 1940년 4월 9일.

오우치 다카오의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일이 없”고 “풍속, 인문 기타 조건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오래간다면” ‘국민문학’이 가능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미루어 보건대, ‘좌담회’가 개최된 1940년 3월 22일 이전까지 ‘만주국’ 문단에서 관 주도 ‘국민문학’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전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팔양은 영어 문학을 예로 들면서 글쓰기 언어의 정치적 의미를 극히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날로부터 정확하게 1년 뒤인 1941년 3월 23일 ‘만주국’ 민생부 홍보처에서는 ‘예문지도요강(藝文指導要綱)’을 반포하는데, 내용 중 “우리나라의 예문은 …… 우리 국토 일본의 예문을 경(經)으로, 원주 민족 고유의 예문을 위(緯)로 삼는다”<sup>29)</sup>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통해 ‘만주국 문학’의 통합은 오우치 다카오가 예상했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지배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만계’의 췌칭은 ‘만주국’의 ‘국민문학’은 ‘만주국’의 문화를 소재로 한 문학이니 당연히 ‘만주’의 언어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언어 통합에 반대한다. 췌칭이 사례로 든 작가는 장혁주와 구딩인데 장혁주에 대해서는 그의 일본어 글쓰기가 결국에는 한국 문학이 아닌 일본 문학 같은 느낌을 준다고 평가절하하는 한편으로, 구딩의 주장을 원용하여 글쓰기 언어의 통합에 성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구딩(古丁, 본명 徐長吉, 1914~1964)은 ‘만주국’ 문단의 대표적인 ‘만계’ 문학자로 만철 계열의 학교에서 공부하여 일본어 능력이 뛰어났는데, 일본어 번역에 대한 중역을 통해 다수의 외국문학 작품을 ‘만주국’에 소개하였다. 그중에는 한국 작가 박능(林龍)의 소설 「你們不是日本人, 是兄弟!」(『文學雜誌』 제2호, 1933년 5월)도 있었다. 일본어 번역에 대한 구딩의 태도는 실용주의에 가까운 바, 그는 일본어를 외국문학을 소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구딩은 일본에서 『대루선전집(大魯迅全集)』을 출간하였을 때 일본 문학자들의 관련 평론을 번역, 집약하여 「루선

29) “我國藝文乃以建國精神為基礎, 是為八紘一字精神之美的體現, 故須以移置我國土之日本藝文為經, 原住民族固有之藝文為緯, 取世界藝文之粹而造成渾然獨特之藝文為目標焉.” 劉春英·吳佩軍·馮雅 編著, 2017, 『偽滿洲國文藝大事記』(下), 北方文藝出版社, 453쪽.

저서 해제(魯迅著書解題)란 글을 발표함으로써 '만주국'에서 금서로 지정되어 판매, 열람이 금지된 루쉰의 저서를 검열에서 자유로운 일본 언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소개하였다.

1930년대 후반 '만주국' 문단에서는 '만주국 문학'의 '지방색채(地方色彩)', '독립 색채(獨立色彩)' 관련 논의가 일었다. 이른바 '지방색채'와 '독립색채'란 '만주국 문학'만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구딩은 '지방색채'와 '독립색채' 등의 제기법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이런 개념들은 "만주의 문학은 반드시 만주의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만주의 문을 굳게 닫는다고 해서 '독립적 색채'를 가진 문학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sup>30)</sup>라는 주장을 펼쳤다. '만주국 문학'의 독립성을 강조하게 되면 '중화민국 문학'과 단절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일제 지배하의 문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딩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구딩의 주장에는 '만주국'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정치적 입장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sup>31)</sup> 췌칭은 구딩의 "각자 특색을 각자의 언어로써 표현하여 충분한 발전이 있는 뒤에 비로소 최고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인용함으로써 '일계'가 주장하는 글쓰기 언어의 통일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요컨대 췌칭의 주장은 글쓰기는 민족어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본어는 매개의 수단으로만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만주국'은 일제의 괴뢰정권이지만 필경 완전한 식민지는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강점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점에 췌칭이나 구딩처럼 비협력적 태도를 가진 '만계' 문학자가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 V. 기원(起源)으로서의 한국어: '선계'의 입장

'만계'의 비협력 문학자<sup>32)</sup>들은 동병상련의 처지인 '선계 문학'을 향해 일본어를

30) 梅定娥, 2017, 『妥協與抵抗—古丁的創作與出版活動』, 北方文藝出版社, 19쪽.

31) 梅定娥, 위의 글.

매개로 하는 연대의 희망을 내보인다. 하지만 ‘만계’ 문인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선계’가 식민지 일본어를 거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한국어 사용이 자유로운 ‘만주국’을 찾아온 이들이라는 점이다. ‘선계’ 문학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한국어 글쓰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새로운 ‘만주국 문학’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선계’가 원하는 역할은 ‘번역자’나 ‘중개자’가 아니라 다원적 주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오랜 시간 ‘만계’와 ‘선계’ 사이의 교류가 적었던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양측의 이와 같은 어긋남이었다. 요컨대 ‘선계’는 ‘만주국’을 반도의 식민지도 아니고 일본도 아닌 제3의 장소로 상상하여 ‘만주국’에서는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다소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선계’는 일제가 요구한 일본어 글쓰기 그리고 ‘차선’으로서 제시한 일본어 번역 모두에 대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어 글쓰기를 적극 지지하는 조선인 이마무라 에이지(今村榮治)의 입장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이마무라 에이지: 조선인은 그렇지만 일부러 일본말 쓰지 않고 조선말 고집하는 것이 아닌가요?

김영팔: 그렇지도 않겠지요.

이마무라 에이지: 사실 지금 조선인의 생활은 점차 일본화하여가며 생활 그 자체가 벌써 어느 점까지 일본어의 밀접한 관계가 발생하여 충분히 일본어로써 조선 생활을 그대로 부자연한 것이 없지 않을까요.

스기무라 유조: 현재 이마무라 군도 일본어로 조선 생활을 그리고 있어요.<sup>33)</sup>

32) 웨칭과 구덩 등의 ‘만계’ 작가들도 ‘만주국’ 말기에는 일부 ‘부역(附逆)’ 즉 ‘친일’ 작품을 발표하고 일제에 협력하는 행위도 일부 있었지만 ‘내선만문화좌담회’가 있었던 시기까지는 일제에 대한 비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적지 않은 연구자들은 이들의 행위에 대한 세밀하고 신중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梅定娥 위의 책 등) 필자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33) 「內鮮滿文化座談會(四)」, 『만선일보』, 1940년 4월 9일.

이마무라 에이지(今村榮治)는 장(張)씨 성을 가진 조선인이라는 사실 외에는 상세한 이력이 밝혀지지 않은 '만주국' 문학자이다. 이마무라 에이지는 '선계' 측 대표 신분으로 '좌담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등단 때부터 일본어 글쓰기만 했고 '일계' 문단에서만 활동하면서 '문화회' 초창기 회원으로 해당 단체의 사무(事務)를 맡거나 '만주문예가협회' 서기(書記)를 역임하는 등 '일계' 문학 단체에서 직무를 맡기도 했다. 그는 한국어가 서툴러 일본어로만 글을 썼고, '선계'가 아닌 '일계' 문단에서 왕성한 창작을 하면서 '만주의 장혁주'라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적지 않은 차별을 받았던 것 같다.<sup>34)</sup> 이마무라 에이지는 자신의 소설 「동행자」의 주인공처럼 일본인처럼 살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일본인이 될 수 없었던 조선인이었다.<sup>35)</sup> 어떤 의미에서 이마무라 에이지는 끝까지 일종의 '사이-존재', 즉 '만주국'에서만 활동했지만 '만계'가 아니고, 조선인 이주자였지만 '선계'가 아니며, 일본어 글쓰기만 가능했지만 '일계'가 아닌 존재였다. 이마무라 에이지가 일본어 글쓰기를 적극적으로 찬성한 까닭에 대해 어느 한쪽에도 확실하게 귀속될 수 없는 '사이-존재'였기 때문에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미래에 완성될 '만주국 문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기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선계' 문학자들이 '만주국 문학'의 독자성을 내세워 제국 일본의 문학도 식민지 한국의 문학도 아닌 새로운 기원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한 사례는 적지 않다. “다만 만주 국민으로서 만주 생활을 묘파(描破)한 문예 작품인 다음에는 조선문으로 쓰인 것일지라도 훌륭한 만주 문학이요, 만주 문학이면야 만주의 문단에 먼저 보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 만주 예문계로서도 먼저 받아드려야 할 것”<sup>36)</sup>이라는 염상섭의 주장, '선계 문학'은 “만주라는 국가와 그 역사와 특이한 성격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 문학 즉 만주 문학이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34) 이마무라 에이지에 관해서는 김장선의 논문 「이마무라 에이지 연구」(2005,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호, 국제한인문학회) 참조.

35) 유수정, 2016, 「이마무라 에이지(今村榮治)의 동행자(同行者)와 완바오산(萬寶山)사건」, 『한국문학연구』 5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45쪽.

36) 염상섭, 「북원 서」(안수길, 1943, 『북원』, 연길 예문당).

위하여서는 조선 문학의 전통을 가장 잘 소화, 섭취하여야만 될 것”<sup>37)</sup>이라는 황건(黃健)의 주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만주’를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로 파악하고 만주에서 ‘새로운 기원’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는 상상은 한국 문학자들의 일제의 식민 지배를 비껴가기 위한 논리적 근거 확보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만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일제라는 사실 때문에 ‘새로운 기원’ 혹은 ‘새로운 나라’는 현실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까닭에 ‘만주국’은 결국 일제 지배하의 ‘기원’ 혹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선계 문학’은 너무 쉽게 일제의 식민주의 담론으로 미끄러지게 된다.

‘만주국’의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고해야 ‘선계 문학’이 놓인 처지를 보다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만주국’에서 선계는 자체적으로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아무런 정치적, 문화적 기반도 갖지 못해 고유의 것을 전부 지키면서 새로운 문학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희박했다. 고재기가 ‘만계’를 대상으로 ‘선계 문학’을 소개하기 위해 쓴 글인 「재만선계문학」에는 이러한 고민이 그대로 담겨있다.

“본 고에서 말하는 만주 선계 문학은 만주의 선계 작가들이 조선어로 쓴 글을 가리키는바 여타의 것은 제외한다. 이러한 견해의 정확 여부는 물론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만주 선계 문학의 운명은 곧 만주에 있는 조선어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고로 모토(母土) 조선의 언어 문제의 추이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나라의 언어 문제는 만주 문학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sup>38)</sup>

‘선계’가 ‘일계’, ‘만계’와의 교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것은 일본어 글쓰기에 휘말리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만주국’에서 한국어 글쓰기를

37) 황건, 1940, 「滿洲朝鮮人文學의 特殊性」,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2」, 『만선일보』 1월 13일.

38) 高在驥, 1942, 「在滿鮮系文學」, 『新滿洲』 6月號, 92쪽.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 VI. 나가며

상술한 바와 같이 '만주국'에서 '선계 문학'이 주목받지 못한 데에는 한국어 문단의 규모나 한국 문인들의 문학적 태도보다는 '선계'의 정체성(identity) 인식에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뒤 조선인은 '망국노(亡國奴)' 즉 '비국민'인 한편으로 일제의 '국민'으로서 '합법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상의 두 신분 모두 인종/민족적으로 주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할 따름이었다.

'망국노'는 경우에 따라서 '피압박민족'으로 동정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마이너리티' 혹은 약소집단의 의미를 가지기에 그 자체의 존재감을 약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일제의 '국민'이라는 신분 역시 온전한 주체로 대접받을 수는 없었다. 실제로 '만주국'에서 조선인은 '2등 국민'으로 호명되어 일본인보다는 못하지만 만주의 원주민보다는 우월한 신분을 부여받았다. 한마디로 조선인은 '만주국'에서 '국민'과 '비국민' 사이에서 이도 저도 아닌 주변부로서 인식되었으며, 한국어 문학 역시 '만주국'의 문학장(場) 속에서는 온전한 개체로서 인식되지 못했다.

'만주국' 바깥의 중국 문단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번역과 소개가 무척 활발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에 비추 본다면 '만주국' 내 '선계 문학'의 틈새 혹은 주변적 지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1932년부터 1945년 사이 장혁주의 「被驅逐的人們(원작: 쫓기는 사람들)」(『文學』 3-4기, 1933년 4월)과 「姓權的那個男人(원작: 권이라는 사나이)」(『文學』 第3卷 第1號, 1934년 7월), 김영팔의 「黑手(원작: 검은 손)」(『現代小說』 第4卷 第4期, 1930년 1월 15일), 朴能의 「你們不是日本人, 是兄弟!(원작 미확인)」(『普羅文學』 第1卷 第2號, 1933년 5월), 조벽암의 「貓(원작: 求職과 고양이)」(『矛盾』 第3卷 第3-4期, '弱小民族文學專號', 1934년 5월) 등 소설이 중국어로

번역되었고, 후평(胡風)이 편집한 『山靈—台灣朝鮮短篇小說集』(文化生活出版社, 1936년 4월)에도 장혁주의 「山靈(원작: 산령)」과 「上墳去的男子(원작: 성묘 가는 사나이)」, 이북명(李北鳴)의 「初陣(원작: 질소비료공장)」, 정우상(鄭遇尙)의 「聲(원작: 소리)」 등 한국 작가의 소설 4편이 대만작가 양쿠이(楊逵), 뤼허뤄(呂赫若)의 소설 두 편과 함께 수록되었다. 그밖에도 시, 수필 등이 중국 문단에 번역 소개되었다.<sup>39)</sup>

이렇게 번역, 소개된 한국 문학은 대부분 일본어로 창작된 작품(장혁주의 경우)이거나 일본어 번역본을 통한 중역(重譯)이다. 또한 이들 작품은 명확하게 ‘약소민족의 문학’, ‘피압박민족의 문학’ 혹은 ‘무산계급문학’이라는 ‘라벨’이 붙어서 소개되었다. 『산령-대만조선단편소설집』을 편집자이기도 한 당대 중국의 대표적인 좌익 문예이론가 후평의 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작품이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우연한 기회 때문이었다. 작년 『세계지식』잡지에서 기를 나누어 약소민족의 소설을 번역, 게재할 때 나는 동방의 조선과 대만이 떠올랐고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문학작품을 중국 독자들에게 소개할 때라고 생각했다.”<sup>40)</sup>

말하자면 식민지 한국의 문학은 중국 문단에서 적어도 계급·계층적 동질감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만주국’의 ‘2등 국민’이자 일제의 ‘국민’인 ‘선계’의 문학은 ‘만주국’ 문단에서 변두리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만계’는 ‘만계’대로 중국어 글쓰기를 하고 ‘선계’는 ‘선계’대로 한국어 글쓰기를 할 터이니 각자의 언어로 글쓰기를 함으로써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에서 다 함께 새로운 기원(起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선계’의 상상은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만주국 국민으로서 만주 생활을 묘파(描破)한 문예작품인 다음에는 조선어 문으로 쓰인 것일지라도 훌륭한 만주문학이요, 만주문학이면야 만주의 문단에 먼저 보내야 할 은 당연한 일이며, 또 만주 예문계로서도 먼저 받아드려야 할 것이

39)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학철의 박사학위논문 『20세기 한국 문학 中譯史 연구』(2009, 서울대학교)와 김병민 등이 편집한 『中國現代文學與韓國 資料叢書』(2014, 延邊大學出版社) 등을 참고할 수 있다.

40) 胡風, 1936, 「序」, 『山靈—台灣朝鮮短篇小說集』, 文化生活出版社.

아닌가 한다. 조선문으로 쓴 것이라야 하여 재만조선인이 끼고 돌 것도 아니요, 만주 문단을 제쳐놓고 먼저 조선 문단으로 달아나서는 의리가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만주의 예문계가 조선문 작품이라 하여 무관심하다면 비위(非違)는 예문단에 있다할 것이니, 만주 예문단도 반듯이 호의(好意)로써 맞아줄 것을 믿는다.”<sup>41)</sup>

만주의 생활이라는 지역적 소재의 내세워 언어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던 염상섭의 주장은 베네딕트·앤더슨의 ‘상상된 공동체’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 혹은 준(準) 식민지라는 만주의 장소적 속성 때문에 이러한 상상은 심각한 딜레마에 봉착한다. ‘선계’에 독립성 혹은 차별성을 부여하는 순간 일제와의 복잡한 관련성 내지는 종속성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만주국’이 만들어지면서 만주라는 지역(local)에는 만주, 조선, 일제 등 다양한 지리적, 인문적 요소들이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만주는 단순명료하게 규명할 수 없는 복잡한 속성들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당시 ‘선계’ 담론 중에는 ‘오족협화’, ‘대동아공영’ 등 일제 식민지 담론의 흔적들이 많이 보인다. 이러한 흔적들이 진정 일제에 포섭된 결과인지 아니면 차별화를 통해 ‘선계’만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담론을 역이용한 것인지는 속단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제’ 내지는 ‘만계’에서도 ‘선계’의 정체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처럼 정열적으로 ‘선계 문학’ 건설을 주장했던 거의 대부분의 문인이 ‘광복’ 이후 한반도로의 귀환을 선택했으니 ‘만주국’의 허구성은 그곳에 존재했던 다양한 문학들의 몸부림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

41) 염상섭, 위의 글.

## 참고문헌

- 文貴良, 2017, 「東北淪陷時期偽滿洲國의 日語殖民問題」, 『學術月刊』 1월호
- 復旦大學歷史系 編譯, 1983, 『1931-1945 日本帝國主義對外侵略史料選編』, 上海人民出版社
- 刘慧娟 主编, 2015, 『东北沦陷时期文学作品與史料编年集成』 第28卷, 线装书局
- 崔貞玉, 2011, 「‘만주문학’을 통한 한중일 문학(자) 교류-좌담회(1938)와 ‘대동아문학자대회’(1942)를 중심으로」, 『中國學論叢』 第33輯
- 1940.04.05., 「內鮮滿文化座談會」, 『만선일보』
- 김장선, 2004, 「偽滿洲國 文學場에서의 변두리文學의 二重性 연구-〈돌아오는 人生〉과 〈新 生〉을 중심으로」, 『人文社會論叢』 제11호
- 김장선, 2019, 「만주국 문학장에 이입된 한국 문학-『조선단편소설선』 출간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62호
- 김장선, 2005, 「이마무라 에이지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3호
- 김재용, 2012,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본 ‘만주국’ 조선인 문학」, 이해영, 이상우 편, 『문명의 충격과 근대 동아시아의 전환』, 경진
- 이해영, 2013, 「만주국 ‘鮮계’ 문학 건설과 안수길」, 『한국현대문학연구』 제40호
- 이해영, 2017, 「‘만주국’ 조선계 문단에서의 향토 담론과 안수길의 『북향보』」, 『만주연구』 제23호
- 박려화, 2015, 「日帝 末 滿洲國 朝鮮人 文學과 中國人 文學의 相互交涉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謝瓊, 2018, 「被忽視的凝視: 滿洲國內鮮滿文學交流新解」, 『瀋陽師範大學學報』 제6호
- 劉曉麗, 2012, 『偽滿洲國文學與文學雜誌』, 重慶出版集團·重慶出版社
- 劉曉麗, 2013, 『偽滿洲國的文學與文學雜誌』, 重慶出版社
- 劉曉麗, 2017, 『異態時空中的精神世界-偽滿洲國文學研究(修訂版)』, 北方文藝出版社
- 李延齡, 2016, 「中國俄羅斯僑民文學與蘇維埃文學的比較研究」, 『俄羅斯文藝』 제1호
- 姜肖, 2015, 「革命話語下的雙重敘事倫理-論‘東北流亡作家群’上海時期‘俄僑’書寫」, 『文藝爭鳴』, 제8호
- 신영철, 1941, 「『짜트는 대지』 뒤에」(신영철 편, 『짜트는 대지』), 만선일보사
- 山田清三郎 외 3인, 1942-1944, 『滿洲各民族創作選集』(一卷, 二卷), 創元社
- 梅定娥, 2017, 『妥協與抵抗-古丁의 創作與出版活動』, 北方文藝出版社
- 유수정, 2016, 「이마무라 에이지[今村榮治]의 동행자(同行者)와 완바오산(萬寶山)사건」, 『한국문학연구』 51집
- 염상섭, 1943, 「북원 서」, 안수길, 『북원』, 연길: 예문당
- 황건, 1940, 「滿洲朝鮮人文學의 特殊性」, 「滿洲朝鮮文學建設新提議·2」, 『만선일보』 1월 13일

高在騏, 1942, 「在滿鮮系文學」, 『新滿洲』 6월호

김학철, 2009, 「20세기 한국 문학 中譯史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병민 외, 2014, 『中國現代文學與韓國 資料叢書』, 延邊大學出版社

胡風, 1936, 「序」, 『山靈—台灣朝鮮短篇小說集』, 文化生活出版社

투고일: 2023년 03월 16일 심사완료일: 2023년 04월 11일 게재확정일: 2023년 04월 16일

■ Abstract ■

Constructing National and Literary Identity  
: The Inner Manchuria Cultural Symposium and Seon-Kei Literature in  
the Japanese Colonial Context

Cui, Yi (Yanbian University)·Wang, Xiu-yuan (Yanbia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political and cultural context of Seon-Kei, or Korean literature in Manchuria and the efforts made to construct the Seon-Kei literary identity amidst the Japanese colonial context. Specifically, the paper focuses on the Inner Manchuria Culture Symposium, where Japanese, Manchu, and Seon-Kei writers engaged in dialogue on whether to write in Japanese or their own mother tongues. The paper reveals the Seon-Kei as a fictive identity of a colonized ethnic group and analyzes the group's rejection of the Japanese writing system as a form of resistance. This sentiment grew out of a desire to recreate and reimagine Manchuria as a new country, distinct from both China and colonial Korea. However, due to the semi-colonial status of Manchuria under Japanese imperialism, this desire failed to build political and cultural foundations and eventually subsumed within the discourse of colonial power.

Key words: Manchuria, Seon-Kei literature, Japanese colonialism, Literary identity, Inner Manchuria Cultural Symposium